2026.10.09 · 첫 시험판

많이 모으고,
중요한 것은 깊게 읽기

짧게 답하면: 이번에는 **AI의 성과와 수익을 구별하는 법**, **신약 정경의 연대를 논증하는 법**, **평화라는 말에 가려진 권력을 읽는 법**이 서로 연결됩니다. 글마다 줄거리를 옮기기보다, 주장과 증거 사이의 틈을 중심으로 읽었습니다.

경제·신학·철학·AI 평가·만화 정치비평을 함께 다룹니다. 아래 판단은 인싸의 해석이며, 원문의 주장이나 실제 사건의 확인 여부와 구분했습니다.

> **수집 항목 310개**
> 관심 관련 고유 글 20편 전문 독해
> 보고서 분석 대상 15편 / 7개 주제
> 15개 피드 성공 · 2개 실패 · 2개 보류

310개는 피드에 실린 과거 글까지 포함한 수입니다. 오늘 새 글 310개가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번 첫 시험판은 최신 글을 우선하되 9월 10일 이후의 관련 글도 포함했습니다. 310개 중 이 기간에 속한 항목은 171개입니다. 이는 피드 범위 안의 수이지, 사이트 전체 발행량이 아닙니다.

본문을 읽은 관련 글 20편 중 조사 참여 안내, 강좌 소개, 일반 세계관 글, 세금·환율 글 5편은 이번 심층분석에서 뺐습니다. 만화 분야는 최신 관련 글이 부족해 9월 글을 명시적으로 다시 읽었습니다.

01 · 경제 / AI 투자

기술이 좋아져도 투자자는 손해 볼 수 있습니다

[확인된 데이터] Michael Roberts는 AI 투자 확대와 현금흐름·수익 사이의 간격을 문제 삼습니다. Econbrowser도 예상 AI 매출이 대규모 설비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묻되, 선두 기업의 보상 가능성과 후발 기업의 손실을 나눕니다. Roberts, 9월 26일 / Econbrowser, 10월 6일

[제 판단] 두 글의 공통점은 "AI가 쓸모없다"가 아니라 "누가, 언제, 얼마를 벌 것인가"입니다. 생산성 향상 → 기업 이익 증가 → 투자비 회수 → 주가 상승은 각각 별도 명제입니다. 토큰 가격 하락은 사용자의 생산성에 유리하면서 공급자의 마진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Roberts는 금융·기술·에너지로 이익이 집중된다는 논리에서 시스템 전체의 취약성으로 나아갑니다. Econbrowser는 같은 투자 위험을 기업별 승패와 자금조달 구조의 문제로 더 좁게 봅니다. 같은 우려를 두 글이 반복한다고 독립 증거가 두 배로 생긴 것은 아닙니다.

주목할 연결고리는 값싼 모델의 등장입니다. 가격이 내려가도 사용량이 충분히 늘면 매출은 늘 수 있습니다. 반대로 높은 이용 증가율만으로 막대한 투자비 회수를 입증할 수도 없습니다. 한국 반도체를 볼 때도 고객사의 투자 발표와 최종 서비스 매출을 따로 읽는 편이 맞습니다.

[미확인] Roberts의 투자액·현금흐름 전망·주가 지표와 Econbrowser의 도표는 원자료를 재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블로그의 전망을 확정된 거시통계나 임박한 폭락 신호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 절은 투자 연구이지 매매 지시가 아닙니다.

노동 몫의 하락:
분모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된 데이터] Roberts는 노동소득분배율을 총소득으로 계산할지, 감가상각을 뺀 순소득으로 계산할지에 관한 Tax Foundation의 반론을 소개합니다. 그 자신도 순소득 기준으로 바꾸면 "역대 최저"라는 표현이 엄밀하지 않다고 인정하면서, 1980년대 이후 하락과 잉여가치율 상승에 초점을 옮깁니다. Labour’s share, 10월 1일

[제 판단] 이 글의 장점은 마르크스주의자가 반대편 계산을 그냥 버리지 않고 재해석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통계상의 노동 몫", "자본주의적 착취", "이윤율"은 같은 지표가 아닙니다. 한 지표의 방향이 다른 모든 지표의 방향을 자동으로 결정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감가상각의 몫이 커지면 임금이 그대로여도 총소득 대비 임금 비중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으로 노동자의 교섭력이 약해졌다고 결론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순소득을 써서 변화가 작아졌다고 분배 갈등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임금의 구성, 자영업 소득의 배분, 산업별 이익 집중을 함께 봐야 합니다.

Roberts는 감가상각도 노동이 만든 가치의 자본 측 취득이라고 해석합니다. 이것은 국민계정의 항목을 마르크스의 범주로 번역하는 이론적 선택입니다. 회계상의 비용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과, 그 비용의 사회적 기원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은 서로 다른 질문에 답합니다.

[미확인] 이 글에 나온 분배율·잉여가치율 수치와 산업별 이익 증가는 원자료를 독립 재현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보고서는 수치 자체보다 계산 기준의 충돌을 분석합니다. 결론을 바꾸는 자료는 같은 정의로 연결한 장기 시계열과 산업별 분해입니다.

벤치마크 점수보다 완료 비용이 먼저입니다

[확인된 데이터] Simon Willison은 Haiku 5.5의 가격, 입력 길이에 따른 요금 변화, 토크나이저 변화와 추론 강도별 결과를 함께 비교합니다. Willison의 실제 사용기, 10월 7일

[확인된 데이터] Anthropic의 10월 7일 발표에서 Haiku 5.5 출시와 요금 구간을 확인했습니다. 입력 100K 토큰 이하에서는 100만 입력/출력 토큰당 $0.10/$0.50, 100K 초과에서는 $0.50/$2.50입니다. 제조사는 토크나이저가 바뀌어 작업당 토큰 수가 조금 늘 수 있다고도 적습니다. 공식 발표·가격표

[제 판단] 싼 모델을 평가할 때는 "토큰당 가격"이 아니라 "검토까지 끝난 작업 1건의 비용"이 단위여야 합니다. 같은 문서가 더 많은 토큰을 쓰거나, 재시도와 사람이 고치는 시간이 늘면 표시 가격의 이점이 줄어듭니다. 입력 길이가 요금 경계를 넘을 때의 비용 변화도 따로 시험해야 합니다.

Willison의 자전거 타는 펠리컨 실험은 시각적 구성과 지시 이행을 빠르게 비교하는 장치입니다. 하지만 원문에서 모델이 이 유명한 시험을 알고 있음을 드러내자 다른 이미지 과제로 바꿉니다. 익숙한 시험에 잘하는 것과 낯선 업무에 잘하는 것을 구별하려는 시도입니다.

관점에서 더 유용한 시험은 한국어 긴 글의 핵심 논증, 숫자 인용 정확도, 반대 주장 보존,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비율입니다. 동일한 원문·동일한 지시·동일한 검토 기준으로 작은 모델과 큰 모델을 비교해야 점수의 의미가 생깁니다.

[미확인] 제조사 표의 성능 수치는 제조사 평가입니다. 제가 벤치마크를 실행하거나 시스템 카드 전체를 검토한 것은 아닙니다. 이 보고서는 어떤 모델이 모든 업무에서 우월하다고 결론 내리지 않습니다.

증명을 발표한 것과 지식이 된 것은 다릅니다

[확인된 데이터] Aaronson의 "The Mathocalypse"는 AI가 만든 다수의 수학 성과와 연구자들의 해독 작업을 소개합니다. 본문에는 372개, 업데이트에는 376개가 등장합니다. 수를 하나로 고쳐 쓰지 않았습니다. Aaronson, 10월 7일

[확인된 데이터] OpenAI 공식 발표는 내부 모델이 만든 수학 결과를 공개하며, 상당수 증명의 Lean 형식화와 계산량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힙니다. 이 발표문에서 전체 개수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OpenAI, 10월 6일

[확인된 데이터] Quanta의 취재 기사도 관련 발표와 연구자의 반응을 다룹니다. 이 기사는 Unique Games Conjecture 결과 외 376개 결과라고 표현하며, 일부 AI 원고의 독립 전문가 검토 부재와 인간 연구자의 조급한 출판 문제를 지적합니다. Quanta, 10월 7일

[제 판단] 여기서는 ① 발표가 있었다 ② 형식 검증 자료가 있다 ③ 의도한 문제를 풀었다 ④ 사람이 이해하고 재사용할 수 있다를 분리해야 합니다. Lean 인증이 특정 형식 명제를 확인하더라도, 원래 문제와 형식화의 대응 및 가정의 타당성을 읽는 작업까지 저절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블로그에 인용된 자문기구의 설명은 자문이 성과나 공개 절차에 대한 보증이 아니라고 선을 긋습니다. "유명 수학자의 자문"을 "모든 결과 검증 완료"로 바꾸면 안 됩니다. 이번 변화의 핵심은 연구의 가치가 답의 생산뿐 아니라 문제 선택, 설명, 가정 점검, 공공 접근성으로 옮겨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미확인] 저는 저장소의 개별 증명과 Lean 인증을 직접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수백 난제 해결 확정"이 아니라 "그런 결과의 공개와 검증·이해 논쟁이 확인됨"으로 보고합니다.

무라토리 단편:
연대가 정경 이야기를 바꿉니다

[확인된 데이터] Jesus Memoirs는 Rothschild의 후대 제작설과 Guignard의 반론을 같은 글에서 정리하고, 별도의 글에서는 Armstrong의 3세기 Victorinus 저자설을 설명합니다. 후대 제작설과 반론, 10월 4일 / 3세기 저자설, 10월 1일

[제 판단] 흥미로운 점은 "2세기냐 4세기냐"라는 이분법에 3세기 가설이 끼어든다는 것입니다. 연대를 바꾸면 이 문서가 초기 정경 형성의 현장 증언인지, 이미 형성된 권위를 과거에 투사한 문서인지가 달라집니다. 바트 어만을 읽을 때도 정경이 언제, 어떤 갈등 속에서 형성됐는지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쟁점은 헤르마스의 『목자』를 "아주 최근, 우리 시대"에 쓰였다고 한 문구, 후대 문헌과의 표현 유사성, 배제된 책과 논쟁 중인 책의 위치입니다. 일상적 문구를 그대로 읽으면 이른 연대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후대 저자가 과거를 재현했다면 그 문구도 연대 증거가 아니라 문학적 장치가 됩니다.

그렇다고 "후대 위작"으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반론은 후대 저자가 왜 당시 널리 받아들인 책을 제외하거나 애매한 목록을 만들었겠느냐고 묻습니다. 3세기 저자설은 문헌의 유사성을 통해 다른 경로를 제시하지만, 두 글이 닮았다는 사실만으로 누가 누구를 빌렸는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읽을 때 잡아야 할 순서는 관찰 → 가설 → 대안 가설 → 가설을 깨는 증거입니다. "이 표현이 4세기에 흔하다"와 "그 이전에는 존재할 수 없다"는 다릅니다. 논증을 이렇게 나누면 학자 이름이 늘어나도 토론을 놓치지 않습니다.

[미확인] 이번에 읽은 것은 연구 블로그의 논문 요약입니다. 인용된 학술논문 원문 전체를 확인하지 않았으며, 학계 합의나 확정 연대를 선언하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의식이나 선함이 따르지는 않습니다

[확인된 데이터] Schwitzgebel은 "AI는 생물이 아니므로 의식이 없다"는 논증을 두 전제로 나눕니다. 어떤 생물학적 속성이 일반 AI에 없다는 주장과, 그 속성이 의식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대사·자기생산·가치 평가 각각에 대해 두 번째 전제의 근거를 따져 묻습니다. 10월 2일 게시, 3일 추가 설명

[제 판단] 이것은 AI가 의식이 있다는 증명이 아닙니다. 반대 논증의 빈틈을 지적하는 작업입니다. 인간처럼 말함 → 의식 있음도 비약이고, 탄소 기반이 아님 → 의식 불가능도 추가 근거가 필요합니다. 수학 실력, 도덕적 지위, 사고의 주관적 경험을 한 덩어리로 묶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확인된 데이터] Experimental Theology는 덕을 길러 주는 실천이, 시작 단계에서 바로 그 덕을 요구하는 역설을 다룹니다. 어려운 대화에는 감정 조절이 필요하지만 그 능력은 어려운 대화를 해 보며 자라기도 합니다. 영적 형성의 닭과 달걀 문제, 10월 7일

[제 판단] 이 글을 AI와 연결하면 "아는 것"과 "지속적으로 그에 맞게 행동하는 것"의 차이가 보입니다. 다만 인간의 덕 형성을 AI 훈련과 동일시하면 안 됩니다. 원문은 공동체가 작은 실험을 함께하고 실패와 불안을 이름 붙이는 방식을 제안하며, 신앙과 기도를 행동 기술로 환원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데이터] Crooked Timber는 AI 소프트웨어가 일으킨 피해를 코드의 탓으로만 돌리지 말고 사용자와 공급자의 책임으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Willison은 사용량 기반 서비스의 예산 경고와 실제 지출 차단을 구별합니다. 책임에 관한 논설, 10월 4일 / 강제 예산 상한, 10월 3일

[제 판단] 앞 글은 법적 책임의 배분, 뒤 글은 설계상의 손해 제한에 초점을 둡니다. 성능·의식·책임은 별개라는 것이 이 절의 결론입니다. 책임 논설은 법률의 현행 내용이 아니며, 예산 제한에 관한 개별 서비스 기능도 이번에 따로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07 · 만화 / 노동·정치비평

평화는 누구의 질서이며, 그 비용은 누가 치릅니까?

[확인된 데이터] 神谷研究所의 『天幕のジャードゥーガル』 평은 정복당한 사람의 복수와 교역·안정을 내세우는 제국의 평화를 대립시킵니다. 복수가 또 다른 일상의 행복을 파괴하는 장면을 중요한 모순으로 읽습니다. 이어 『カラモランの大空』를 제국의 질서에 가까운 시각에서 대조합니다. 9월 15일 평 / 9월 16일 비교 평

[제 판단] 좋은 정치비평은 제국이 악하다는 말에서 멈추지 않고, 그 제국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행복과 피해자의 복수가 충돌하는 장면을 봅니다. "평화"는 정복의 폭력을 지울 수 있고 "정의로운 복수"는 새 피해를 숨길 수 있습니다. 두 작품의 시점을 맞대면 같은 질서가 보호하는 삶과 파괴하는 삶이 보입니다.

[확인된 데이터] The Comics Journal의 9월 22일 글은 『침묵의 함대』와 『공모 이부키』를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와 군사적 자율성 사이의 긴장을 보여 주는 작품으로 읽습니다. 해당 비평 전문

[제 판단] 이 글은 만화의 반전 메시지가 언제나 군사력의 부정과 같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전쟁을 막는 명분이 압도적 무장과 지도자의 결단을 미화하는 장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글의 일본 정치 세 진영 구분과 작가 집단 성향은 필자의 큰 해석이며, 대표성 있는 조사의 결론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미확인] 저는 작품 전권·영상 전체를 직접 비교하지 않았습니다. TCJ 글에 등장하는 2025~2026 정치 사건과 동기 해석도 별도 검증하지 않았으므로 현안 설명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두 일본 작품의 한국어 정식 출간명·구매 가능 여부는 확인하지 않아 원제를 유지합니다.

[확인된 데이터] Crooked Timber의 "How Money Matters"는 은행 장부를 통해 금·지역 거래·글로벌 금융·원주민 토지의 연결을 읽습니다. 10월 7일 역사 비평

[제 판단] 만화와 이 글의 접점은 "질서를 만든 비용이 기록 안에 보이는가"입니다. 장부의 금 매입액에는 자연 훼손과 삶의 상실이 직접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노동·정치비평에서는 영웅과 제도뿐 아니라 서사가 계산 밖으로 밀어내는 사람과 비용을 읽어야 합니다. 원문 중 Substack 홍보는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독해 안내

오늘 꼭 읽을 글

1. 무라토리 단편의 연대: 주장과 반론을 함께 읽기
신약학의 결론보다 추론 과정이 궁금하실 때 가장 추천합니다.

2. Haiku 5.5 실제 사용기
가격·추론 시간·시험 오염을 함께 보는 모델 평가 사례입니다. 가격은 본문의 공식 링크와 대조하십시오.

3. 노동소득분배율: 계산 기준이 바꾸는 이야기
마르크스 범주와 국민계정 사이의 번역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4. AI 의식을 부정하는 논증의 두 전제
찬반 결론보다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 보여 줍니다.

5. 『天幕のジャードゥーガル』의 평화와 복수
경제·정치 논쟁을 인간의 삶으로 다시 내려놓는 비평입니다.

보충: AI 수학 성과와 연구 공동체의 반응은 공식 발표와 Quanta 취재를 함께 읽으십시오. 개별 증명의 타당성과 총 개수는 이번 보고서에서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 [제 판단] 오늘의 연결 문장
> **능력의 증가와 좋은 결과는 다릅니다.**
> AI 성과에는 검증과 수익 회수, 정경 연구에는 대안 가설, 정치적 평화에는 숨겨진 비용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번 시험판의 수집 기록

수집 시각: 2026년 10월 9일 22:52~22:53 KST. 각 피드는 한 번만 요청했습니다. 원문 전문은 피드에 포함된 본문을 뜻하며, 연결된 논문·영상·댓글과 일부 이미지·도표까지 모두 확인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 Michael Roberts: 8개
- Conversable Economist: 10개
- Econbrowser: 10개
- Jesus Memoirs: 9개
- Experimental Theology: 22개
- Crooked Timber: 15개
- Simon Willison: 9개
- 神谷研究所: 7개
- Leiter Reports: 10개
- Daniel Lemire: 26개
- Psephizo: 실패, HTTP 403
- Offsetting Behaviour: 7개
- Scott Aaronson: 6개
- EconLog: 실패, HTTP 403
- Eric Schwitzgebel: 4개
- Daniel Little: 2개
- The Comics Journal: 26개

Gelman: 앞선 확인과의 3,600초 간격을 위해 이번 재수집을 보류했습니다. 다음 허용 시각을 23:48 KST로 잡았습니다. Marginal Revolution: 600초 간격을 위해 22:58 KST까지 보류하며, 이 시험판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시각은 재조회 약속이 아닙니다.

Psephizo와 EconLog의 403은 이번 접근 실패입니다. 사이트가 중단됐다는 뜻이 아니며, 본문을 읽은 것으로 세지 않았습니다. Daniel Little의 최신 글은 9월 30일 KST, 神谷研究所의 최신 글은 10월 6일입니다. 해당 분야의 매일 새 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건부 TCJ는 일본 만화 관련 1편만 분석했습니다. 사진 글·링크 모음·공지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글은 분석 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정량적인 이념 균형 평가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다른 사이트가 같은 자료를 인용할 수 있으며, 신학의 학술 연구와 목회적 성찰도 다른 종류의 근거입니다.

보충 확인은 승인 피드의 중요 주장 2건에 대해 회사의 공식 발표와 독립 취재를 대조한 것입니다. 이를 새 구독원이나 수집 항목 수에 넣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첫 시험판의 과거 글을 매일 재분석하지 않고, 새 글과 논증의 변화를 중심으로 읽는 방식이 적합합니다.